

삼성전자 COMMENT

3Q25 Conference call 요약

반도체, 한동희 / donghee.han@sks.co.kr / 3773-8826

2025-10-30

AI 강세가 서버 DRAM, SSD 까지 확산. 투자증가, 최대생산 고려해도 초과 수요
HBM 역시 초과 수요. 26년 고객 수요 모두 확보. 3e 모든 고객사에 양산 판매 중
서버 강세와 선단 전환으로 모바일, PC, 레거시 공급 부족 2026 년에도 지속

Datapoint (QoQ)

DRAM: (B/G) +14%, (ASP) +15% 추정. 4Q25 (B/G) +한자리수 초반% (가이던스)

NAND: (B/G) +10%, (ASP) +5% 추정. 4Q25 (B/G) -10% (가이던스)

MX: (출하량) 스마트폰 6,100만대, 태블릿 700만대. (ASP) 스마트폰 304달러. 4Q25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량, ASP 하락

2025 년 CapEx

3Q25 9.2조원 (DS 7.8조원, SDC 0.8조원), 4Q25 15.1조원 (DS 12.4조원, SDC 1.2조원)

메모리: 전년과 유사. 인프라투자는 전년대비 감소, 다만 선단전환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

파운드리: 양산라인 전환, 보완중심 운영으로 전년대비 투자 축소

디스플레이: 기존 라인 보완 및 향상 투자 중심 집행. 8.6G 주요 투자 마무리로 전년대비 투자 축소

삼성전자 3Q25 연결 잠정 실적				단위: 조원	
	3Q25	2Q25	QoQ	3Q24	YoY
매출액	86.1	74.6	15%	79.0	9%
DX	48.4	43.6	11%	45.0	8%
VD/CE	13.9	29.2	-52%	30.5	-54%
MX/NW	34.1	14.1	142%	14.1	142%
DS	33.1	27.8	19%	29.2	13%
SDC	8.1	6.3	29%	8.0	1%
Harman	4.0	3.8	5%	3.5	14%
영업이익	12.2	4.7	160%	9.2	33%
DX	3.5	3.3	6%	3.4	3%
VD/CE	(0.1)	3.1	적자전환	2.8	적자전환
MX/NW	3.6	0.2	1,700%	0.5	620%
DS	7.0	0.4	1,650%	3.9	79%
SDC	1.2	0.5	140%	1.5	-20%
Harman	0.4	0.5	-20%	0.4	0%
영업이익률	14%	6%	8%p	12%	2%p
DX	7%	8%	-1%p	7%	0%p
VD/CE	-1%	11%	-12%p	9%	-10%p
MX/NW	11%	1%	10%p	4%	7%p
DS	21%	1%	20%p	13%	8%p
SDC	15%	8%	7%p	19%	-4%p
Harman	10%	13%	-3%p	10%	0%p

주: 삼성전자, SK증권

주요 사업부별 4Q25 및 2026 전망

	4Q25	2026
DS 메모리	AI 및 Conventional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 예정 HBM3E, 고용량 eSSD 등 최첨단 제품을 통해 시장 요구 충족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추진 업계를 선도하는 128GB 이상 DDR5 QLC 24Gb GDDR7 등 다양한 고성능 제품 활용	HBM에 대한 전략적 집중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성능의 HBM4 사업 확대에 집중 HBM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HBM 판매 기반 확대 목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주력 DDR5, LFDDR5x, 고용량 QLC SSD 등 AI 관련 제품 확판 추진
S.LSI	주요 고객사 수요 약세 지속되나, 프리미엄형 SoC·이미지센서 판매 확대 추진	주요 모델 진입 위한 엑시노스 경쟁력 향상 통한 시장 리더십 확보 이미지센서 차별화 기술 통한 점유율 확대
Foundry	2나노 본격 양산하고, 가동률 향상 및 원가 개선으로 실적 지속 개선 목표	2나노 2세대 신제품 양산, 4나노 성능·전력 최적화 및 HBM4 Base-die 양산에 집중 미국 Taylor Fab 적기 가동 목표
SDC 중소형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 지속으로 판매 증가 전망 스마트폰 외 제품도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응하여 판매 확대	AI Device용 차별화 기술과 폴더블 제품 완성도 향상으로 스마트폰 기술 격차 확대 신규 8.6G IT 생산 라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OLED 침투 가속화
대형	QD-OLED 모니터 신규 라인업 채용 제품의 본격 출시에 따른 판매 확대 추진	TV : 성능 우위 기반 프리미엄 리더십 유지 모니터 : 라인업 확대와 고객 다변화로 시장내 QD-OLED 입지 강화
MX/NW MX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S25 /폴더블 등 AI 스마트폰 판매 확대하여 전년비 성장 추진 Ecosystem 제품도 신규 프리미엄 제품 중심 확판 추진	혁신적 폼팩터 디자인과 차세대 AI 경험을 통한 AI 리더십 강화 AI 스마트폰 중심 판매 확대로 전 세그먼트 성장 추진하여 수량 리더십 공고화 시장 불확실성 지속 및 재료비 부담 증가 예상되나 프로세스 최적화 통한 원가 효율화도 지속 추진
NW	북미 등 주요 시장 판매 확대로 전분기, 전년비 실적 개선 전망	국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 견조한 해외 사업자 매출을 통해 외연 성장 목표
VD/CE VD	프리미엄/대형 TV 중심 판매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성수기 수요 선점으로 매출 성장 전환	Micro RGB 등 혁신제품 통한 프리미엄 리더십 제고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추진
DA	관세 등 불확실성 상존 불구, AI 가전 등 프리미엄 중심 확판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노력	강화된 AI 기능 및 볼륨존 제품군 경쟁력 제고로 매출 성장 목표 HVAC 등 고부가 중심 사업구조 개선 주력

주: 삼성전자, SK증권

사업부별 실적과 전망

<메모리>

3Q25: 생성 AI 향 투자 확대로 서버향 제품 고성능, 고용량 요구 증가. HBM, 고용량 D5, 서버향 SSD 수요 강세 지속
모바일, PC 또한 업계 내 서버 중심 공급 대응 영향으로 타이트한 수급 지속
HBM3e 확판과 함께 서버 포함한 응용 전반 수요 강세 대응. 디램, 낸드 모두 마찬가지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전분기 대비 실적도 대폭 개선. 재고관련 일회성 비용 감소도 기여

4Q25: 관세와 매크로 경기 추이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하나, AI 인프라 확보 경쟁에 따른 하드웨어 투자 지속 확대 예상
AI와 관련한 서버향 수요 지속 증가 중. 업계 내 공급량을 큰 폭으로 초과한 상황
모바일, PC는 업계 내 서버 중심 공급 기조, 온디바이스AI에 따른 채용량 증가, 계절 수요 맞물려 공급부족 더욱 심화

서버수요 증가세 적극 대응할 것

디램: AI 및 일반 서버향 수요 강세 맞춰 HBM3e, 고용량 서버D5 중심으로 수익성 최적화

낸드: 고용량, 고성능 서버 SSD 확판에 주력

2026: AI 투자 확대 기조 유지 가운데,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메모리 집약형 컴퓨트 서버 증가 전망

모바일, PC도 온디바이스AI 확산에 따른 채용량 증가 트렌드 지속 기대

낸드는 니어링HDD 공급부족에 따른 SSD 대체 영향으로 업계 재고수준이 급격히 축소되어 공급제약 더욱 심화될 것

응용 전반에서 26년 물량에 대한 메모리 수요도 예년대비 강하고 빠르게 진행 중

투자, 캐파 확대 계획 감안해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

디램: HBM 판매 기반 늘려나갈 것. 특히 제품 초기 개발 착수 단계부터 고객 요구를 상회하는 11Gbps 이상 성능 확보한
HBM4는 업계 최고수준. 하이엔드 기반 확판할 것, 일반 디램도 고용량 D5, LP5x, GD7등 고부가 비중 늘릴 것

낸드: AI 수요 강세 연계해 서버SSD, 고용량 QLC 늘릴 것. v8, v9 전환 해 선단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예정

〈시스템 LSI〉

3Q25: 스마트폰 상반기 소폭 성장 이후 둔화. 특히 미국 관세 리스크 대비해 수요 선반영해 재고 축적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하반기 재고소진하며 전반적 수요는 약세 전환

업계 최초 0.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 픽셀 구현한 2억화소 이미지센서 출시하며 고화소시장 기반 마련
SoC 는 3 분기 출시된 주요 고객사 프리미엄 라인업에 안정 공급 주력. 다만 시장 전반 재고 조정과 주요 고객사 계절 수요 영향으로 수요가 상반기대비 감소해 3 분기 실적 정체

4Q25: 경기 불확실성 여전해 성장세 제한. 주요 업체들의 재고 조정 지속되며 수요 회복속도 완만할 것. 다만 주요 고객사 프리미엄 라인업 중심 공급 확대 추진하고 원가절감 지속해 수익성 개선과 실적 방어에 집중할 것

2026: 중국, 북미 등 주요 시장 스마트폰 수요 낮은 성장세 예상. 다만 프리미엄 시장은 주요 업체 라인업 강화 및 사양 상향으로 견조한 성장 지속 전망. 엑시노스 공정 조기 안정화, 성능 확보 통해 주요 고객사 핵심 모델 진입 추진 중
동시에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및 나노프리즘 등 차별화 기술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 노력할 것

〈파운드리〉

3Q25: 미중 제재 리스크로 일부 거래선 판매 영향. 다만, 미주 주요 고객사 확판과 메모리 제품 판매 증가로 매출은 전분기 수준 유지. 한편, 일회성 비용 감소, 라인가동률 개선 및 원가절감 효과로 이익은 큰 폭 개선
또한 2나노 1세대 공정 적용한 첫 제품 양산 시작. 2나노 대형 고객 수주 등 선단 공정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 실적 달성

4Q25: 미 정부 관세 정책으로 일시 증가했던 수요는 둔화 예상. 다만, AI 및 HPC의 강한 수요와 중국 반도체 자립화 수요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2나노 신제품 양산과 HPC 및 오토용 제품, 메모리 제품 공급 확대 통해 매출 확대할 것
가동률 향상 기반으로 실적도 지속 개선시킬 것
선단공정: 2나노 2세대 공정 개발 계획대로 진행 중. HPC 및 모바일 응용처 수주를 2나노, 4나노 중심 확대 기대
성숙공정: 스페셜티 공정 포트폴리오 확대 통해 오토 등 다양한 응용으로 고객 기반 다변화 계획

2026: 모바일 시장 정체 전망. AI 및 HPC 견조한 수요 예상. 특히 3나노, 2나노 공정 양산 본격 확대되며 선단공정이 성장 주도할 것. 다만, 미중 기술경쟁 심화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존재해 수요 변동성도 상존 전망. AI, HPC 강세 대응해 선단비중 확대에 안정적 매출 성장 도모할 것

특히, 2나노는 안정적 확보를 기반으로 2세대 공정 신제품 양산 추진할 것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차별화 된 공정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4나노 성능 전력 최적화 공정 양산 및 HBM4 베이스다이 양산 통해 모바일, HPC 등 대응할 것. 테일러팹 26년부터 본격 가동 개시 예정

〈디스플레이〉

3Q25: 중소형은 전분기대비 실적 개선. 주요 고객 플래그십 건조한 수요, 신제품 출시로 확장

또한 아이티올레드 채용 확대로 판매 증가도 실적개선 기여

대형은 게이밍용 QD-OLED 수요 확대 및 고객 요청 적극 대응. 전분기대비 모니터 판매 두자리수 이상 증가

27인치 QHD 신규라인업 도입해 QD-OLED 모니터 수요 추가 확대 기반 마련

4Q25: 연말 성수기 효과와 프리미엄 제품 수요 지속 전망. 매출 확대 추진 위해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티, 오토, 게이밍 판매 강화. QD-OLED 모니터는 신규 라인업 제품 출시 본격화로 판매 극대화

QD-OLED TV는 주요 고객에 연말 성수기 수요 안정적 대응

2026: 관세 영향 본격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보수적 성장 전망. 다만, 올레드는 다양한 응용처에 우수한 성능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채용 확대 중. 이에 대응해 제품 경쟁력을 응용처별 강화시켜 리더십 더욱 공고히 할 것

26년 양산시작되는 8.6세대 라인에서 올레드 대세화 가속시킬 것.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기술 격차 확대위해 폴더블 완성도 향상, 저전력 고속 구동 활용할 것. TV는 휘도 등 차별화 성능 우위 강화하고, 모니터는 B2B, B2C 확대 고객 기반 다변화

〈MX〉

3Q25: 관세협상 진전 등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수요 일부 반등

스마트폰 6,100만대, 태블릿 700만대. 스마트폰 ASP 304달러 기록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로 매출과 이익 전분기 대비 성장. 폴드 7 중심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두자리수 성장 달성

S25 모멘텀도 유지. 스마트폰 내 플래그십 비중 확대와 태블릿, 웨어러블 신제품 중심 판매 개선으로 두자리수 수익성 유지

4Q25: 전분기대비 계절성으로 성장. 다만, 프리미엄 중심으로 경쟁 심화될 것. 스마트폰 출하량 및 가격 감소하고, 태블릿 출하량도 전분기대비 감소 전망. AI 스마트폰인 폴더블, S25 시리즈 건조한 판매 지속하고, 에코 제품군도 계절성 연계해 프리미엄 신제품 중심 확판 추진할 것. 경쟁심화 및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되지만, 전년대비 연간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유지위해 플래그십 중심 판매 및 전 프로세스 확대 노력할 것

2026: 스마트폰은 금액, 수량 모두 동등 수준. 프리미엄에서 초프리미엄인 폴더블 크게 성장

매스 세그먼트도 하이 가격대 중심으로 성장 전망. 에코시스템 제품에서 태블릿은 교체수요 둔화되는 가운데 노트북은 AI PC 확대 및 윈10 교체 수요로 증가. 워치, TWS도 헬스, 스포츠 관심 증가 및 AI 기능 확대로 성장 전망

AI 리더십 지속 강화와 폼팩터 혁신으로 플래그십 중심 확판 기조 유지할 것

전체 세그먼트 성장 추진위해 지역과 채널 확대 전략 및 제품 경쟁력 기반 업셀링 활용해 수량 리더십 공고히 할 것

S26은 사용자 중심의 4세대 AI 경험과 2세대 커스텀 AP, 신규 카메라 센서 등 사용 경험 혁신

폼팩터 혁신 지속해 제품 라인업 보강 등 고객 확대할 것

에코제품은 프리미엄 확대 위해 완성도 및 고도화 된 AI 기능 제공할 것

특히 워치는 헬스 AI 경험 지속 강화, TWS는 라인업 확장으로 신규수요 창출할 것

<VD>

3Q25: TV는 전분기대비 계절 성수기로 수요 증가. 다만 전년비 소폭 역성장

프리미엄 제품이 네오 QLED, 올레드 대형에서 견조한 성장. 다만 경쟁사 저가 공세 대응위해 75 인치 이상 라인업 다양화해 엔트리시장 공략했지만, 전년, 전년동기 대비 수익성 감소. 제반 비용 증가

4Q25: TV 전년비 소폭 성장 예상. 다만, 경쟁은 연말 판매 성수기 진입으로 더욱 심화 전망

주요 유통사와의 전략적 협업 통해 프리미엄, 대형 중심으로 수요 선점하고 성장 추진

2026: 25년 대비 소폭 성장. 또한 주력인 QLED, OLED 75 인치 이상 대형 프리미엄 전략 비중 더욱 확대

프리미엄 리더십을 혁신적인 마이크로 RGB OLED 로 새로운 카테고리 선점해 기술리더십 선점할 것

볼륨군 제품 경쟁력도 강화해 매출 성장 추진할 것

AI 기능 지속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 높여 주도권 강화,

수익성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 위해 서비스 광고 사업 고도화 및 TV 플러스 콘텐츠 강화할 것

Q&A

Q) 3Q25 메모리 출하와 가격, 4Q25 메모리 전망

인퍼런스 응용 확대와 에이전틱AI 도입 확대로 AI 설비투자 큰 폭 확대. 디램, 낸드 공히 서버중심 수요 강세 지속
서버용 메모리 우선공급 기조에 따라 모바일, PC용 메모리도 공급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 AI 관련 메모리 확판 추진

디램은 HBM과 서버용 고용량 D5, LP5X, GD7 중심으로 10% 중반 출하 성장

낸드도 고수익 서버용 SSD 대응해 10% 수준 출하 성장

3분기 B/G는 디램, 낸드 모두 가이던스 상회, 재고도 추가적으로 감소

가격은 디램 전분기대비 10% 중반, 낸드는 한자리수 중반% 상승

수익성은 전분기 재고 충당금 감소해 실적개선에 일부 기여

4분기도 주요 CSP 설비투자 확대로 AI 강세 지속. 반면 공급은 업계 재고 정상 이하로 제한 중

디램, 낸드 모두 전용용 가격 상승 확대. 수익성 위주 운영 지속할 것

디램은 HBM3e 적극 대응, 서버용 제품 비중 높여 고부가인 고용량 D5, LP5x 집중할 것

다만, 전반적 재고 감소로 B/G는 한자리수 초반 상승 예상

낸드는 v8, v9 전환 지속 동시에 AI 인퍼런스 서버 16TB TLC SSD, 초고용량 QLC SSD 4분기 본격 판매

다만 재고 감소 가속화, 레거시 공정 선단 전환 영향으로 단기적 빛 로스 불가피. 4분기 출하량은 전분기대비 10% 감소 예상

낸드 내 서버 SSD 매출 비중은 대폭 증가 예상

Q) 자사주매입 현황

10조원 규모 분할매입 발표. 지난 9월 전량 취득 완료. 연간 9.8조원 배당 외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까지 성공적 완료
주주가치 장기적 가치제고 위해 지속 검토 중. 보유자사주 중 임직원 보상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소각

Q) HBM 현황 업데이트 및 전망

HBM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중. 모든 고객사 대상으로 HBM3e 양산판매 확대 중

3Q25 HBM 판매량은 전분기대비 80% 중반 성장. 대부분 HBM3e

HBM4는 이미 개발 완료해 모든 고객들에게 샘플 출하. 양산 출하 준비완료

최근 고객사 사이 GPU 성능경쟁 심화로 주요 고객사들이 계획을 변경해 더 높은 성능을 요구 중

HBM4 개발 착수부터 시장 니즈 사전 반영해 요구를 상회하는 목표 설정 후 개발. 11Gbps 이상 성능 저전력 만족 가능

성능향상 거세지고 있어 HBM4 수요도 증가할 것. 대응 위한 1c 확대위한 투자 적극 실행할 것

26년 HBM 판매계획은 올해대비 대폭 확대로 수립했지만, 고객 수요를 이미 모두 확보

추가적인 수요가 접수되고있어 증산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

HBM과 일반 디램 간의 상대적 수익성 고려해 추가 증산 규모는 시장 모니터링 통해 결정할 것

Q) 26년 메모리 전망

성장 모멘텀은 AI가 견인할 것. 디램은 AI 응용 요구 고도화되며 고성능 HBM4 시장 본격 도래, 서버디램 고용량화 지속
업계 공급이 HBM과 서버에 쏠리며 모바일, PC형 공급 제약. D4, LP4X, GD6 등 레거시는 선단 전환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가격 상승 중. 26에도 공급 제약 상황 지속 전망

낸드는 AI형 고성능, 고용량 위주로 수요 증가. 니어링HDD 공급 부족으로 QLC 중심 수요 견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업계 재고 바닥에 도달할 것

설비투자 증가 및 최대생산 고려해도 수요가 이를 초과. 공급 가용량이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26년 하반기는 AI 관련 반도체 수출 제한, 관세 등을 고려해 지켜봐야 함
다만, 성장하는 AI 시장 목표로 차별화 된 HBM4 사업화 집중, 고용량 D5, SOCAMM, GD7, 서버SSD 확대 주력하고,
온디바이스 AI 향 특화 제품도 적극 대응할 것

Q) 임직원 주식보상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미래성장기성과창출 동기부여 위해 PSU 발표. OPI는 대상을 임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동기부여와 동반성장 초석 마련하기 위함. 성과연동주식보상은 향후 3년간 주가 상승에 따라 최종 지급 주식수량 결정해 3년
분할 지급. 선진형 보상방식. 주주가치 제고 동기부여 위함
임원 대상이었던 OPI의 보상 대상을 26년 1월부터 전직원으로 확대 적용할 것
지난 1년간 매입한 10조원 규모 자사주 중 임직원 보상분 제외한 8.4조원은 적절한 시점에 전량 소각할 것
나머지 1.6조원 자사주는 OPI 등 기존 보상 재원으로 활용. 신규로 발표한 PSU에 필요한 자사주는 추가 매입할 예정

Q) 3Q25 파운드리 적자 폭 축소 배경과 추세 지속에 대한 의견

올해 상반기는 첨단 칩에대한 미중 제재 영향으로 판매불가제품 재고충당 등 발생
24년 하반기 낮은 가동률 구간에서 고원이 제품의 판매와 25년 상반기 저조한 가동률의 영향 받음. 다만 3분기는 지난분기 발
생한 일회성 비용 감소하고, 선단공정 중심으로 가동률 개선 가운데, 원가 절감 효과 더해져 적자 대폭 축소

4분기는 2나노 1세대 공정 적용한 신제품 본격 양산과 함께 미국 및 중국 주요 거래선의 HPC, 오토 수요 강세 제품과 메모리
제품 확판 통해 매출 증가 예상. 지속적인 가동률 개선과 원가 효율화로 실적 추가 개선될 것

Q) 메모리 등 부품가격 상승 속에서 MX사업부의 수익성 유지 여부

메모리 가격이 3분기부터 본격 반등. 4분기에도 인상 폭 확대 전망. 재료비 부담 증가 불가피
원가 부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플드7, 플립7 호조와 S25 서스테인 판매 전략 지속해 플래그십 중심 확판 지속
프리미엄 에코 시장 지배력 역시 확대할 것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등 프로세스 최적화 노력. 비효율 개선 및 원가 절감 활동 지속 목표

Q) 26년 메모리 설비투자 계획

적극투자 기조 하 전년대비 상당수준 증가 고려 중. 최근 몇 년간 미래 클린룸 확보 등 인프라는 꾸준히 했음
 디램은 AI 연간 수요 대응 위해 1b, 1c 포트폴리오 구축위한 선단 빗 증산 위한 투자. 미래 수요 대응위한 건설도 일부 집행
 설비투자 내 디램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전망
 낸드는 수요 확인 후 선단 비중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

Q) 25년 파운드리 투자 축소 배경과 26년 투자 방향성

25년은 2나노, 1.4나노 등 선단 경쟁력 확보 위한 미래 투자는 지속. 다만 양산 투자는 기존 라인 전환 및 보완 중심 운영
 전년대비 설비투자 감소했음. 26년은 고객 확보와 연계한 탄력적 설비투자 집행 기조 유지
 테일러 신규팹 본격 가동 위한 건설 마무리 및 설비투자 집행할 것
 2나노 2세대, 17나노 CIS등 신공정 양산 준비 병행하며 설비투자는 24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

Q) 올레드 침투율 확대 속 디스플레이 전략

차별화 된 기술을 아이티, 오토로 확대해 생태계 확장 주도. 매출 비중도 증가 중
 AI 아이티 디바이스 증가, 저소비전력 고화질 요구 증가 중. 아이티에서 올레드, 채용 지속 확대될 것
 8.6세대 신규 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 선도하고, 고객 대응 확대해 중장기 성장기조 확보
 오토는 리지드 경쟁력 활용해 프리미엄 뿐 아니라 볼륨존까지 확대
 경쟁우위 더욱 강화하고, 아이티 오토 등 신성장 사업 더욱 확보할 것

Q) 신규플래그십 엑시노스 채용 가능성, 소비자들의 AI 사용 패턴

플래그십 제품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준 명확히 보유. 이에 부합하는 AP 검증하고 선정
 플립7 및 일부 A시리즈에 채택. S26 AP 평가 아직 진행 중. 사용 패턴 관련해 올해 출시된 플래그십 단말 대부분이 갤럭시 AI
 기능 활용하고 있고, 주간 사용률 60%, 월간 80% 기록. 나우브리프, 포토어시스트 좋은 반응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에이전트 통해 통합시킬 것. 갤럭시 전반 AI 기능 확대시킬 것

Q) TV 경쟁 심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

중화권의 저가공세로 엔트리급 경쟁 심화 중. 우리만의 차별화 된 제품력으로 점유율 회복 및 성장 전환시킬 것
 신규팩터인 마이크로RGB로 리더십 선점. 올레드 확판 통해 프리미엄 성장 견인, 마이크로RGB와의 시너지 극대화

볼륨 세그먼트에서는 AI 기능, 라인업 확대 적용하고, QLED 마케팅 강화해 경쟁사 가격 중심 경쟁을 가치 경쟁으로 전환
 9월 빅스비 통해 비전AI 캠페이션 런칭. 26년에는 라인업과 적용 국가 대폭 확대시킬 것
 또한 리얼퀀텀닷 인증 유일하게 받은 경쟁력 소구해 중저가 시장 공략할 것

초대형은 엔트리 라인업 확대해 98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 리더십 제고할 것
 견조한 수익성의 서비스 비즈니스는 TV사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지속 확대시킬 것
 TV플러스는 독점 및 생중계 콘텐츠 발굴해 차별화, 성과형 광고매출 확대위한 광고주 확보 추진할 것

COMMENT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10월 28일 기준)

매수

91.93%

중립

8.07%

매도

0.00%